

11/18(목) 욥기 묵상 17

욥기 9:23-3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변론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논쟁적인 수아 사람 빌닷의 연설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빌닷은 첫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권선징악의 구도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그는 엘리바스보다 좀 더 철저히 옛 가르침에 의지하고 또 광범위한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관

욥기 8 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과 변론을 했던 욥은 9 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변론을 중재해 줄 재판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마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24 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즉, 이 세상은 욥의 눈으로 볼 때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하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욥은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느끼고 있습니다(25-26 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하지만, 욥은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고쳐 먹으려고 애를 써 보기도 합니다(27 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러나, 욥의 마음은 이내 불안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욥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따라 하나님의 정죄함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28-29 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는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욥 8:5-6,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의 말은 욥이 청결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평탄하지 못한 것이며 이제라도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나누는 변론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통의 원인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욥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불공평함을 겪게 만드시는가?”하는 점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의 근원이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이 욥의 고통을 더 증가시켰던 것입니다.

불일치

욥은 자신의 고민을 토로한 뒤 스스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33 절, “우리 사이에 손을 엮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34-35 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마치 욥이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고통 사이 삶의 불일치에서 질문하고 갈등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두 얼굴, 즉 두 성품을 스스로 일치시키려고 부단 애쓰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볼 때, 현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난 시절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비교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즉, 욥의 질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걸까? 아니면 나를 대적하시는 걸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여러가지 고난과 환란을 대할 때 욥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 과거에 베풀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이 현재 내가 겪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고와 아픔을 당한 신자들의 소식을 종종 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나오기 전에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세 아이의 엄마가 위암 말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온 성도가 30 대 중반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결국 가족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때 제 안에서 맴돌고 있던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두 얼굴을 스스로 일치시키려고 부단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함부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말과 행위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삶의 정황과 부합되지 않을 때 그것은 듣는 이들에게 교훈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욥의 말을 먼저 끝까지 다 들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당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잣대로 먼저 다가가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먼저 열어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언젠가 그들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내년 3 월 9 일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나라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코비드 19 로 인해 위축되었던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드-베다니 1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OMSC 를 위해서 중보합니다.